

건축문화의 선진화

작년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8일 건축학회 대전/충청지회 세미나에서 서울대 건축학과 김광현교수님(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건축기본법은 건축관련 여러 가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건설산업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으니 건축에 건축기본법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로자복지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국어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기본법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본 건축법보다는 인간적이어서 다행입니다.

요즘은 많은 것이 정신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리되기 보다는 혼란한 것들이 더욱 두드러지는 시간인 듯 합니다. 어려운 처지가 우리를 위축되게 하지만 최근의 모든 문제를 건축기본법에 기초하여 건축과 건축문화가 선진화되도록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1. 건축문화의 필요성

업체난립



가인하 출혈경



한계상황

이 현상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 서비스산업의 얘기입니다. 심각한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건축용역업체가 처한 한계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포화상태인 건축시장의 ‘단가 낮추기’ 경쟁과 건축구조업체의 실상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루루 떠밀려 벼랑끝에 선 건축의 모습은 우리가 옛날에 바라보았던 건축의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혼란한 건축의 모습과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소명과 엔지니어로서의 가치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공존하는 건축이 우리의 내일이 되어야 합니다. 화합하고 배려하는 건축이 되면 조금 부족해도 살아갈 만 할 겁니다. 좋은 건축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2. 건축(디자인)과 건축구조의 상생

70년대 말 방향 중에 광화문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실습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는 구조하시는 분도 설계사무소에 합



김치윤 정책위원회 위원장
(주)신화엔지니어링 전무이사

계 있었지요. 잔심부름으로 가까스로 한달치 차비받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축과 건축구조는 완전히 남남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떤 이들은 건축구조를 건축의 무식쟁이로 취급합니다.

건축에서는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와 인허가 업무라는 칼을 흔들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크게 부족합니다. 우리는 건축디자인을 존중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은 건축구조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은 5년제 건축학과와 4년제 건축공학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잘된 일이 아닙니다.

건축디자인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건축구조를 모르면 건축디자인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에는 창조성이 있다고 합니다. 건축구조에도 창조성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단지 기술자의 창조성과 경륜을 경시하는 건축 전반의 분위기가 무서울 뿐입니다.

건물의 겉모습은 날로 호화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형영색색의 투시도와 모형만 부각되는 이면에는 공학과 기술자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걸이면 모든 공학은 안이고 속입니다. 속을 경시하는 건축분위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조화와 균형, 배려 이런 것들이 건축디자인의 생명 아닙니까? 속인 구조와 공학을 경시하는 분위기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건축과 건축구조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속은 공학이고 품격이며 인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화이부동(和而不同)입니다. 하나이되 각자가 독립된 분야라는 겁니다. 건축과 건축구조는 서로를 아껴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잘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면 합치기도 해야 합니다. 상생을 논하는 건축문화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건축구조의 가치관

이선승지(以善勝之)는 카톨릭학교인 충남논산 대건고등학교의 교훈입니다.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고난을 헤쳐 나간다는 뜻이겠지요. 이선승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건축구조분야에도 정신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개처럼 벌여 정승처럼 쓴다는 정신 말고…….

내세울 만한 장인(匠人)정신이 필요한데 이선승지가 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장인의 정신과 자긍심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남다름과 탁월성입니다.

탁월의 대상은 업무처리와 성과품, 그리고 도덕성입니다. 누구나 일도 잘하고 성품도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인재입니다. 구성원의 사기와 의욕에 따라 조직과 나라의 성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정신을 갖춘 탁월한 분야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자긍심을 더욱 높혀 건축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건축구조분야에는 탁월한 분이 가득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우수한 구조분야 인재들을 사무실에 가둘 일이 아니고, 널리 세상에 골고루 보내어 건축이 선진화되도록 풀어주어야 합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일입니다. 건축구조분야에서는 평범함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4. 건축구조분야의 미래

건축구조의 미래와 희망은 첫째도 전문분야로서의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는 완전한 독립입니다. 건축과 건축구조가 하나이면 상관없지만 이대로라면 독립해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건축관련 직무분야와 등급이 명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분야	종류 및 등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건축	건축구조	-	-	-
	건축기계설비	-	-	-
	건축시공	건축	건축	건축
	-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건축품질시험	-	-	-

앞으로 건축구조가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려면 기사종류에 건축구조를 추가해야 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모자라서 힘이 약한 것이 아니고 전문분야로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약한 겁니다.

익히 알다시피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 조정, 토목분야는 전부 해당분야의 학과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건축기계설비도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다수인 점을 보아도 건축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체계에 허술한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회사, 설계사무소 등에서 다양한 구조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상당수의 엔지니어들이 설계외주 시스템에 의한 제한된 업무범위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학교 건축공학과에 구조교수님들이 계신 이유는 건축공학의 핵심이 구조공학이기 때문이며 앞으로 건축구조와 토목구조가 통합될 가능성도 있지만 건축구조기사를 대학에서 양성토록 하여 예비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소용이 없듯이 건설사업이 없으면 존재의 기로에 서겠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한 건축구조도 존재할 겁니다. 건축구조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확고하여 대학에서 성실한 자원들이 확보되면 발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생과 상호존중의 문화를 기원합니다. 건축구조의 정의도 건축기본법상에서 건축과 같이 "구조공학 전반에 관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